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오는 20일 장흥서 '팡파르'

26일까지 7일간·6개 전시관·7개 부대행사장



2017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장흥군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새로 개원한 정흥통합의료병원과 함께 하는 올해 박람회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1번지, 장흥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목표로 7일 동안 펼쳐진다.

개막식은 20일 오후 2시에 힐링 무대와 통합의학관 입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총 6개 전시관, 7개 부대행사장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전시관은 ▲현대의학 통합의학관 ▲한의학 통합의학관 ▲보완대체 통합의학관 ▲건강 100세관 ▲꿈나무 건강증진관 ▲의료 산업/장흥 특산물관이 운영된다.

현대의학 통합의학관은 14개의 분야별 현대의학 기반 통합의학병원 체험과 홍보부스로 구성됐다.

한의학 통합의학관에서는 한의학 중의학 등 8개 병원의 진료체계가 실시되고, 보완대체의학관에서는 척추정리, 수기, 홍채 검사, 피부관리, 향기요법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완대체 의학을 선보인다.

건강 100세관은 22개 시군 보건소에서 보건사업 홍보와 체험장을 운영하고, 의료산업관에서는 통합의학 관련 기업제품의 전시·관객이 이뤄진다.

박람회 기간 동안 컨벤션홀과 힐링공연 무대에서는 건강강좌와 운동 프로그램, 어울림마당이 연이어 준비돼 있다.

약초테마공원 야외무대에서는 장흥 예술인과 단체에서 매일 3회 공연을 펼쳐지고, 고구려대 약초 전시관도 운영된다.

장흥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지역 생약초 산업, 통합의료 관련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최초로 국제 박람회를 열어 무려 121만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으는 기염을 토했다.

국내 박람회는 올해까지 포함하면 7번의 행사를 치르는 셈이다.

통합의학은 서양의학, 전통의학, 그리고 검증된 대체의학을 모두 동원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자의 마음과 삶까지 치유하는 미래 의학의 새로운 흐름이기도 하다.

건강과 치유'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장흥군이 통합의학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장흥군은 통합의학의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 의료관광산업과 휴양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개인의 건강과 세계의학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분들이 올해 박람회에 참여해 삶이 건강해지는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 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인기 절정

추석 연휴 전 좌석 매진...8월 탑승률 100%

여수시가 시티투어에 공연과 이벤트를 접목해 운영 중인 '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운행 첫 달인 8월에는 100%, 9월에는 95% 이상의 탑승률을 보였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7일 동안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티투어와 연극, 문화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지는

이벤트형 테마버스다.

지난 8월 5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매주 금·토요일과 공휴일에 총 39회 운영된다.

주제는 낭만버스 안에서 세 요정이 벌이는 사랑이야기다. 마법의 정령 역할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맡고, 시간의 정령은 고리시대부터 현재를 넘나드는 연극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 약기의 정령은 버스커 공연을 통해 음악의 세계로 관광객들을 인도한다.

낭만버스는 공연 외에도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가족 친구, 연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세레나데와 여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여수 퀴즈광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의 인기 비결은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음악과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점"이라며 "이경평소를 돌아보는 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객에게 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가을여행주간인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운영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의회, '1일 명예의장' 제도 운영 제2대 1일 명예의장에 김연자 女단체협의회회장 위촉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는 지난 13일 제2대 '1일 명예의장'으로 김연자 무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1일 명예의장은 의회 의정실의 문턱을 낮춰 다양한 계층의 군민을 매월 1일 명예의장으로 위촉해 하루 동안 의정의 직책을 수행하며 의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군민 소통과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날 제2대 1일 명예의장으로 위촉된 김연자 무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 그동안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2대 명예의장은 무안군의회 이동진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의회운영계획을 보고받은 후, 의정실 방문한 박정애 호남축산 대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관련 애로사항과 한국여성농업인 무안군 연합회 및 무안군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선진지 시찰견학 예산 협조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연자 명예의장은 "비록 하루지만 의정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무로 다가왔다"면서 "앞으로 군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무안군정과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듣기 위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을 1일 명예의장으로 모실 계획이며,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소통해 무안군을 '행복지수 1위'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채도...105억 조성

진도군의 인재육성장학금 기탁이 연일 채도하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청년회 100만원, 조도면 이상단 100만원, 조도면 기관단체장에서 100만원의 진도군인재육성장학금에 전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또 아우토반 허보광 대표 100만원, 김덕수 前 진도군의회 의장 70만원, 진도를 서부회 1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기탁했다. 한국 김생산 어민연합회 진도군지회 500만원, 향토예비군 진도군 지역대장 장병석씨가 100만원, 진도를 새마을 부녀회원 200만원, 고군면 회동마을 주민 100만원, 고군면 체육회 200만원, 조도면 체육회 100만원 (사)한국산업경영인 진도군연합회에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지난 2008년 10월 2억원으로 모금을 시작해 현재 105억6,000만원이 조성돼 있다.

이날 현재 1,478명의 정기 후원이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장학금 기탁에 관한 문의는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061-540-3243)로 하면 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아침밥 꼭 챙기세요" 장흥군, 건강 캠페인 실시

영양의 날 맞아 거학생·직장인 대상

장흥군은 지난 13일 영양의 날을 맞이하여 장흥군청 앞에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를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흥군보건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활기찬 식습관 아침밥 먹고 건강 UP! 집중력 UP!'란 주제로 진행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아침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쌀로 만든 간편식(식혜, 약밥)을 제공했다.

이날은 '금연을 생활화 하시다'라는 주제로 금연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도 노력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침밥을 먹으면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며, "변비 해소, 성인병 예방 등 이로온 점이 많아,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첫걸음에 들어선다"고 강조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